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박 현 선**

고위험 빈곤청소년이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을 보다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의 내용과 주관적 괴로움 정도를 고찰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저수준의 생존상태에서 살아가는 극빈 가구들인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을 고위험 빈곤청소년으로 정의하고, 351명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생활조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크게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낙인이거나 편견에 의한 스트레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는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되는 문제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가정환경과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뒷받침되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일 뿐 아니라 비행과 같이 행동화되는 문제성향도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 문제제기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 자체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험을 경험한다.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물론이고, 진로에 대한 탐색, 자율성의 추구 등 다양한 가치관들 사이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움과 혼돈을 겪게 되고, 이러한 당혹감이 급기야는 비행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더욱이 빈곤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청소년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취약한 환경에서 비롯된 위험(risk)에도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

* 본 연구는 1998년 전북대 신입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및 전북대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는다 (Brooks-Gunn, Kleanov, Liaw & Duncan, 1995; Huston, 1991; McComick & Brooks-Gunn, 1989).

때문에 청소년 비행이나 자살 등을 보도하는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빠지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이나 하는 말이다. 실제로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다보면, 상당수가 매우 빈곤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상담자조차 저런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까지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빈곤한 환경에서조차 별탈없이 건전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현저하게 뛰어난 적응능력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면 이들의 다양한 적응상의 스펙트럼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최근 빈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연구하는 국내외 선행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박현선, 1998; 백정재, 1996; Brooks-Gunn, Kleanov, Liaw & Duncan, 1995; Huston, 1991; McComick & Hernandez, 1993).

이들은 빈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간의 단선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빈곤 청소년 내에서도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적응 수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개인별로 처해 있는 위협의 정도가 상이하고, 확보한 개인적, 환경적 자원의 정도도 상이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빈곤 청소년이 처해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risk factor)를 밝히고, 나아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보다 많은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고위험(high risk) 청소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빈곤의 기준이 임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 밀집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인종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같이 빈곤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유의 표집이 이루어지거나 영구임대주택이나 철거지역 거주자 등 특정 지역 거주 여부만으로 빈곤을 측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나 실제 빈곤의 수준과 지속정도 등을 도외시한 상대적인 기준이었다. 그러나 빈곤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의 측정이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설정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와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한 주관적 피로움 정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즉, 빈곤한 환경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결손가정의 비율도 높고, 부모의 불화, 자녀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의 가능성 또한 높다. 이외에도 빈곤이라는 환경과 맞물리는 만성적인 위협들이 있고, 이러한 위협으로 주관적인 피로움 정도도 상이하다. 물론 국내 최근 연구(박현선, 1998)에서는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나 적응에 저해가 되는 객관적인 생활조건인 위험요소에 치중하여 위험요소가 각 개인

에게 주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즉, 동일한 위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괴로움을 호소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극도의 괴로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위험요소 여부와 더불어 주관적인 스트레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족의 결손이나 장애 등 객관적인 위험의 존재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활조건이나 사건이 실제 주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러한 생활조건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지가 개인의 적응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 청소년의 적응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단순히 심리적 문제의 여부나 비행, 또는 학교 적응 등으로 국한하여 적응을 조망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청소년의 총체적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행과 같이 드러나는 행동적인 적응여부도 중요하지만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과 관련하여 성실성과 지적 발달을 가능할 수 있는 학업성취 정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의 적응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 학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빈곤청소년 중에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극심한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생활보호대상가구의¹⁾ 청소년을 고위험 빈곤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황이란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에 극도로 노출된 상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활보호대상가 구야말로 최저수준의 생존상태에서 살아가는 극빈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민이 속한 다양한 집단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다(김인숙, 1994). 이러한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 자녀들은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험 예컨대, 부모의 만성적 실직, 부모의 정신질환, 보호자의 방임,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부모의 알콜중독, 학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회적 낙인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들을 객관적인 고위험 상황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해 이들이 겪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 즉, 다양한 환경관련 스트레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심리사회적 적응을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다각적으로 고찰하

1) 보건복지부는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23만원/2,900만원 이하인 자로 결정 발표하고, 한시보호생보자의 경우는 23만원/4,400만원 이하인자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99년 보호대상 인원은 거택보호 331천명, 자활 766천명에 달해 시설보호자를 포함할 경우 117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5%이며, 한시생활보호자를 포함할 경우 174만5천명으로 인구대비 3.8%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생활보호는 지속적 빈곤이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 보다 엄격하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시켰다.

기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생활조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내용은 어떠하며, 이들의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이 이들의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고위험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빈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II.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동향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는 구조적, 발달적 이슈가 동시에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다. 빈곤 청소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빈곤 청소년 자체에 대한 것 보다는 빈곤 가족에서의 청소년 자녀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김정자의, 1998; 박상희, 1993), 결혼 가정 문제의 일부로서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언급한 연구(김정자의, 1985; 강혜구, 1987; 고성혜, 한유진, 1995; 정경숙, 1990) 등이 있다. 또한 빈곤지역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과 같은 개입 연구를 하거나(전재일 외, 1990), 사회계층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정일훈, 1981; 김준호 외, 1996), 또는 빈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 및 실태(이순형 외, 1991) 등의 연구들이 파편적으로 있어 온 정도이고, 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학교에서 현저하게 뛰어난 적응양상을 보이는 빈곤 청소년에 대해서 위험-보호요소 상호적모델에 입각해 경험적으로 논증한 연구(박현선, 1998)가 있지만 이 또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 중에서도 학교에서의 적응만을 주로 고찰하고 있으며, 연구대상 또한 전문가의 기준에 근거하여 빈곤한 가정을 선정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 가구와 같은 극빈층의 고위험 빈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에서는 빈곤 상황에서 개별적 특성, 가족과정(family process), 사회적지지 등이 이후의 청소년 비행이나 학업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을 어떻게 대개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논의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DuBois, Felner, Meares, Krier, 1994; Hashima &

Amato, 1994; Kanr, 1995; Kub, 1996; Luthar, 1991; Taylor & Robert, 1995).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요소로는 자신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제감, 타인과의 정서적 안정성, 반사회적 성향과 같은 초기 아동기의 기질 등을 들고 있다. 즉 자신감을 가질수록 문제행동을 덜 보이며(Taylor & Robert, 1995)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수록, 적응능력이 뛰어난을 의미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빈곤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에 대한 경험, 학교에서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통제감, 타인과의 정서적인 안정성이 학교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Connell, Spencer & Aber, 1994).

빈곤과 가족과정간의 관련성을 논의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빈곤지역의 부모들이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서 효과적인 양육을 할 가능성이 적고, 보다 적은 자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배우자 폭력, 약물남용, 범죄와 같은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적인 부모자녀 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은 덜 강조된다고 주장한다. 즉, 빈곤과 같은 저소득층 부모는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자녀들의 반사회적인 행동과 비행을 강화하고, 그러한 일탈행동을 보였을 때도 효과적인 처벌을 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Sampson & Laub, 1994).

이러한 빈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족과정의 관련성은 Conger (1992; 1994) 등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정과 행동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의 적응 즉, 문제행동간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et. al, 1992). 즉,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감정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부모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결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과정을 좀더 확장하여 가족 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과 같이 비공식적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애착'으로 빈곤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 Sampson 과 Laub(1994)는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애착이 느슨해졌을때 비행이나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DuBois(1994) 등의 연구에서는 빈곤 청소년의 적응이라는 산물변수를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응을 정서적, 학업적, 행동적 적응으로 나누고, 사회환경적인 조건이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회에 걸친 사후추적연구를 수행했다. 독립변수로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주요한 생활사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일상 스트레스, 지각된 가족내 지지, 학교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고, 종속변수인 적응은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적응을 측정하였다.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 약물 및 행동문제, 성적, 출석, 정학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과 사회적 지지가 사후추적에서 최초적응상태를 통제하고도

심리적인 디스트레스와 행동문제의 예측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관련된 조건들은 저조한 학업성적을 보이며, 학교 출석률도 저조하고 훈육상의 문제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매우 취약했고, 교사 등 학교세팅의 성인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로부터 보다 큰 심리적 이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여타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의 질병과 같은 일상적인 만성적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하고, 적응의 수준을 예측하는 사회경제적 예측인자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만성적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을 가진 청소년에게서 보다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다 확장시키고 있다. 비록 사회경제적 배경을 불문하고 만성적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상관관계 양상이 사회경제적 박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청소년에게서 보다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약물 남용과 같은 특정 영역의 적응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만성적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보다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또한 선생님과 같은 학교 인력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취약한 배경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조금도 사회경제적인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기반의 사회적 지지와 이후의 적응간의 관련성이 매우 미약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은데 반하여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학교 인력(학교 선생님, 상담가)으로부터의 지지는 긍정적인 학업성취와 다양한 사회정서적 산물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한편 Kub(1996)은 청소년기 스트레스 과정에서 상이한 스트레스의 역할과 잠재적인 완충제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요소로서 초기 아동기 요소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특히 남아의 경우,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와 더불어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초기 아동기의 가족스트레스가 청소년기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중요한 선행변수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빈곤과 관련된 청소년 적응에서 대부분 동의하는 사안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정적, 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한 빈곤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학교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이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서울시 빈민 밀집지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재가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를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하여 해당지역내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자녀를 10명씩 유의표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와 석사급 보조연구자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연구목적과 표집방법을 충분히 설명한후, 이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1998년 9월 11일-11월 21일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실제 분석에 유효하게 사용된 설문지는 총 351부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심리사회적 적응

본 연구에서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다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DuBois 등(1994)의 연구에서 정의했듯이 세 개의 하위 차원 즉,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chenbach의 YSR 척도를 한국화한 '한국판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YSR)'(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하은혜, 1998) 중에서 우울 및 불안 성향과 비행성향에 대한 하위척도를 각각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학업적 적응 측면은 기말고사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각 척도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우울/불안(.81), 비행 (.7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환경 관련 스트레스

빈곤한 환경에서 파생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빈곤 여성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김인숙(1994)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간 경험하는 생활사건과는 달리 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생활상의 곤경들을 생활조건으로 정의하고, 일상생활에서 1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생활보호대상가구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괴로움의 정도로 측정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김인숙(1994)의 생활조건관련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되, 문항의 표현방식을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76으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개인적, 가정적, 학교환경적 특성

우선 개인적 특성은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Nowicki-Strickland Locus of Control Scale(Fisher & Corcoran, 1994)을 통해 외적 통제소재를 측정했다.

가정적 특성은 이시형 등(1996)의 연구에서 활용한 양육태도 척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즉, 애정과 자율에 기반한 민주적 양육태도 점수와 통제와 간섭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통해 가정환경의 분위기 및 특성을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적 특성은 미국 교육부의 교육통계관련 종단연구(1988)에서 활용한 학교 생활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결과 지지적 학교분위기와 통제억압적 학교분위기라는 두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각 하위척도는 Regression 방식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요인점수를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자존감 (.80), 외적통제소재(.69), 학교분위기(.75)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의 성별은 남학생이 전체의 46.5%, 여학생이 53.5%로서 여학생의 수가 약간 많게 나타났고, 연령분포는 11세에서 19세로서 평균 15세정도였다.

가족구조는 편모가정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부가정이 14.2%, 소년소녀가정이 7.4%로서 66.3%에 달하는 과반수 이상의 가정이 구조적 결손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부가 약 47세, 모가 약 43세였으며,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부는 37.3% 모는 59.0%로서 부모 모두 비교적 낮은 학력을 보이고 있다.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반수가(57.3%)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약 80%가량이 생활보호 중에서도 자활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생활보호기간은 약 4년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극도의 만성적인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일반적인 배경변수의 분포를 통해 예측한대로 객관적인 고위험 빈곤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 도(명)	백분율(%)	계
학생 성별	남 자	160	46.5	351(100.0)
	여 자	184	53.5	
	무 응 답	7	2.0	
부의 교육수준	무 국	7	2.0	351(100.0)
	중 고	58	16.5	
	대졸이상	66	18.8	
	해당없음/무응답	85	24.2	
		17	4.8	
		118	33.6	
모의 교육수준	무 국	17	4.8	351(100.0)
	중 고	82	23.4	
	대졸이상	108	30.8	
	해당없음/무응답	91	25.9	
		3	0.9	
		50	14.2	
거주지역	영구임대APT	201	57.3	351(100.0)
	일반주택가	138	39.3	
	무응답	12	3.4	
생활보호종류	거택보호	65	18.5	351(100.0)
	자활보호	275	78.3	
	무응답	11	3.1	
가족구조	양친부모가정	111	31.6	351(100.0)
	편부가정	50	14.2	
	편모가정	157	44.7	
	소년소녀가장	26	7.4	
	무응답	7	2.0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의 연령	15.1	1.5	11.0	19.0
부의 연령	46.5	5.5	37.0	66.0
모의 연령	42.9	5.5	31.0	65.0
생활보호기간	4.3	2.5	1.0	13.0

2. 고위험 빈곤 청소년이 경험하는 환경관련 스트레스의 내용과 영향

1) 환경관련 스트레스의 내용

객관적인 고위험 상황을 개별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2> 스트레스 내용별 순위

문항내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생필품 구매와 관련된 어려움	348	2.73	1.43
편부모 가정이라는 편견	348	2.40	1.49
부모님의 부부싸움	348	2.31	1.62
등록금이나 학원비로 인한 어려움	348	2.15	1.43
가족의 신체적 질병	348	2.07	1.41
부모님의 낮은 학력	348	1.93	1.23
아버지의 과음과 주정	348	1.90	1.47
아버지의 만성적 실직	348	1.90	1.39
생보자라는 비웃음과 창피	348	1.82	1.22
진학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348	1.78	1.27
임대주택거주자라는 비웃음	348	1.61	1.07
나의 신체적 질병	348	1.55	1.08
어머니의 과음과 주정	348	1.32	.93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348	1.31	.90
어머니의 학대	348	1.26	.80
아버지의 학대	348	1.24	.80

우선 고위험 빈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빈곤환경 관련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3>와 같이 스트레스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높은 순위로 꼽힌 것은 역시 생필품구매와 관련된 어려움과 같이 가정 전반의 경제적인 문제였고, 편부모 가정이라는 주변의 편견, 부모님의 불화, 등록금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었다.

<표 3> 생활조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직각회전 요인유형행렬표)

문항내용	요인 1	요인2	요인3	공통분산비
아버지의 과음과 주정	.698	4.314E-02	-1.444E-02	.490
아버지의 만성적 실직	.631	.138	5.388E-02	.420
부모님의 부부싸움	.580	6.734E-02	3.787E-02	.341
부모님의 낮은 학력	.443	9.868E-02	5.228E-02	.208
아버지의 학대	.430	.188	5.863E-02	.224
어머니의 과음과 주정	.351	.233	9.151E-02	.186
어머니의 학대	.230	.225	8.391E-02	.111

진학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3.16E-02	.670	.281	.529
등록금이나 학원비로 인한 어려움	9.480E-02	.640	.289	.502
생필품 구매와 관련된 어려움	.221	.535	.203	.376
나의 신체적 질병	.160	.351	3.480E-02	.150
가족의 신체적 질병	.212	.316	1.739E-02	.145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259	.306	-2.46E-02	.161

생보자라는 비웃음과 창피	.134	.202	.782	.671
임대주택거주자라는 비웃음	.150	.111	.743	.587
편부모 가정이라는 편견	-.115	.196	.256	.117

고 유 값	3.126	1.411	.682	
총분산 (%)	19.536	8.819	4.260	
누적분산 (%)	19.536	28.355	32.615	

이러한 스트레스 문항을 보다 입체적으로 질적 고찰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내용별로 하위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차후의 회귀분석에 스트레스의 내용을 변수화하여 투입하고자 함과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떠한지 추가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표4>. 요인분석은 반복추축요인법(PAF)에 의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생활조건을 구성하는 16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용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Bartlett Test of Sphericity = 1189.479 Sig= .000), 표본 적합도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aiser-Meyer-Olkin's MSA= .744). 요인수는 Scree Plot를 검토하여 요인수를 3으로 지정하였고, 이렇게 추출된 생활조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Regression method에 의한 요인점수를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1에는 부모의 과음과 주정, 불화, 만성적 실직, 낮은학력과 같은 문항들로 주로 가족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과생되는 주관적인 어려움들이었다. 특히 부모님간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이 주로 포함되었다. 요인2에는 생필품구입이나 진학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 3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임대주택거주자라는 주위의 비웃음이나 결혼가정의 자녀라는 편견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고위험 빈곤 청소년들이 빈곤 환경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내용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요인1), 생활상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비 문제로 겪는 스트레스(요인2), 고위험 빈곤가정 자녀라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에 의한 스트레스(3요인)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주요한 배경변수 즉, 성별, 거주지역별, 학교급별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4> 참조).

<표 4> 성별, 거주지역별, 학교급별 환경관련 스트레스 수준 비교

스트레스 내용	집단별 평균		t값
	성 별		
가족환경스트레스	남 -3.4E-02	여 3.2E-02	-.706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남 -9.9E-02	여 8.1E-02	-2.051*
낙인/편견 관련 스트레스	남 -.135	여 .104	-2.636**
	거주지역		
가족환경 스트레스	영구임대 -2.1E-02	일반주택 8.5E-03	-.305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영구임대 -1.9E-02	일반주택 3.9E-02	-.645
낙인/ 편견관련 스트레스	영구임대 4.1E-02	일반주택 -5.6E-02	1.043
	학교급		
가족환경 스트레스	중학생 -7.4E-02	고등학생 .140	-2.218*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중학생 -9.0E-02	고등학생 .154	-2.542*
낙인 / 편견관련 스트레스	중학생 1.1E-02	고등학생 -2.5E-02	.371

* p< .05 ** p< .01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나 낙인 및 편견관련 스트레스에서만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스트레스와 같이 내재화되는 주관적인 괴로움에 보다 취약한 반면에 남학생들은 비행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보다 많이 겪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어느정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낙인/편견관련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주택가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많은 주관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로는 가족환경 관련 스트레스와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모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정도로 주관적인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단, 낙인과 편견관련 스트레스는 중학생이 보다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요컨대, 고위험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여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적인 조건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보다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을 계획함에 있어 이러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2) 환경관련 스트레스가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관련 스트레스가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표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배경변수 중에서는 성별이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일수록 학업성취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불안 및 우울성향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는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세 영역의 스트레스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표준화계수 .246으로 우울 및 불안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편견 및 낙인 (.187), 가족관련 스트레스(.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과 같은 행동적인 문제 영역에는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편견이나 낙인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 같은 학업적 적응영역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스트레스의 영향력 정도가 적게 나타나서 가족관련 스트레스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불화나 부모의 학대 등과 관련된 주관적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학업성취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환경관련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불안/우울 성향		비행문제성향		성적	
	B	β	B	β	B	β
자녀연령	4.0E-03	.019	5.4E-02	.034	.288	.112
자녀성별	8.3E-02	.125	-7.5E-02	-.152	1.592**	.203
가족관련 스트레스	6.5E-02**	.170	4.5E-02**	.158	-.595**	-.128
경제/의료관련 스트레스	9.9E-02**	.246	1.6E-02	.055	-.135	-.028
편견/낙인관련 스트레스	7.2E-02**	.187	3.6E-02**	.125	3.2E-02	.007
상수	1.375		1.290		2.510	
R ²	.180		.066		.063	
F	14.562**		4.635**		4.305**	

* $p < .05$ ** $p < .01$

요컨대, 부모의 학대나 불화, 주장, 낮은학력 등의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세 가지 적응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수록 우울/불안과 비행성향이 높아지고, 성적과 같은 학업성취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낙인 및 편견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거주자나 결손가정의 자녀라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비행이라는 일탈로 빠질 위험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생활보호대상가정의 청소년들은 객관적인 고위험 상황으로 인해 주관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들 스트레스는 이들의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적응

본절에서는 고위험 빈곤 청소년들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하고, 개인적 특성요인인 자존감과 외적 통제소재, 환경적 특성인 민주적,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관련 변인, 지지적, 통제억압적 학교분위기와 같은 학교 관련 변인을 동시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배경변수 중에서 각 적응의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소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일수록 비행과 같은 외현화되는 행동적인 문제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스트

레스를 여학생이 더 많이 느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학업적인 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불안/우울 성향		비행문제성향		성적	
	B	β	B	β	B	β
자녀연령	1.8E-02	.084	5.5E-02	.035	.345*	.135
자녀성별	8.9E-02**	.136	-7.2E-02**	-.150	1.687**	.219
자존감	-.174**	-.280	-3.2E-02	-.070	1.614**	.218
통제소재	5.4E-02*	.128	2.5E-02	.008	.540*	.110
민주적 양육태도	-2.1E-02	-.058	-4.4E-02*	-.168	.757**	.182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9.3E-02**	.191	7.6E-02**	.217	-8.7E-02	-.016
지지적 학교분위기	1.0E-02	.028	-4.7E-02**	-.179	.552*	.129
통제억압적 학교분위기	8.3E-02**	.196	-1.1E-02	-.004	8.2E-03	.002
상 수	1.491**		1.334**		-4.502	
R ²	.271		.123		.160	
F	13.902**		5.216**		6.882**	

* $p < .05$ ** $p < .01$

이러한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정서적 적응영역인 불안/우울성향에는 자존감, 통제소재,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통제억압적 학교분위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낮고, 일의 성취여부가 자기자신 보다는 운명이나 외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불안/우울 성향이 높고, 부모가 통제적이고, 간섭적이며, 학교 환경도 통제적이고, 억압적일 때 불안 /우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자존감이 표준화계수 -.280 으로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문제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지지적인 학교 분위기로서 개인적 변수보다는 주로 환경적인 변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 성향은 취약한 환경에 의해 발생할 여지가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존감, 통제소재, 민주적인 양육태도, 지지적인 학교 분위기로서 지지적인 환경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과 같은 개인적 요소가 구체적인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인과

적으로 파악하기 보다 선행연구에서 처럼 높은 성적의 결과로서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관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개인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을 보다 많이 소지한 빈곤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적응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본절에서는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고위험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이상에서 분석한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환경적 특성요인을 동시에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표7>에서와 같이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고도 세 영역의 스트레스가 불안 및 우울 성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비행성향에는 가족관련 스트레스만이 유의미 했고, 성적에는 스트레스 관련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다른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불안 및 우울 성향과 같은 내재적인 문제성향에 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고위험 환경관련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영역별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 결과, 불안 및 우울 성향에는 자존감, 통제소재, 통제억압적 학교분위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도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통제전에는 유의미했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력은 없어졌다.

한편, 비행성향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전과 동일하게 민주적인 양육태도,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지지적인 학교분위기와 같은 환경적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 민주적 양육태도, 지지적 학교분위기로서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하기 전에 유의미했던 통제소재는 통제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불안/우울 성향		비행문제성향		성적	
	B	β	B	β	B	β
자녀연령	7.5E-02	.035	2.1E-02	.013	.361*	.141
자녀성별	5.7E-02	.086	-8.1E-02	-.169	1.695**	.219
가족관련 스트레스	5.0E-02**	.130	2.6E-02**	.093	-.403	-.086
의료/경제적 스트레스	8.2E-02**	.198	1.3E-02	.045	.120	.025
편견/낙인관련 스트레스	6.5E-02**	.166	2.9E-02	.103	-6.9E-02	-.015
자존감	-.164**	-.265	-2.8E-02	-.062	1.568**	.212
통제소재	5.1E-02**	.123	1.1E-02	.004	.540	.110
민주적 양육태도	-8.3E-02	-.023	-4.0E-02**	-.155	.738**	.177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5.3E-02	.110	6.3E-02**	.179	-6.7E-02	-.001
지지적 학교환경	7.3E-02	.020	-4.7E-02**	-.180	.545*	.128
통제억압적 학교환경	8.4E-02**	.199	-7.5E-02	-.002	-8.7E-02	-.002
상수	1.723**		1.409**		-4.732	
R ²	.367		.145		.167	
F	15.424**		4.493**		5.213**	

* $p < .05$ ** $p < .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관련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적인 문제 성향을 야기하며, 이렇게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되는 정서적인 문제성향을 감소시키고, 학업성취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동일한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가정 환경과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뒷받침되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만 아니라 비행과 같이 외현화 되는 문제성향도 경감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고위험 빈곤상황이라는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하면 할 수 있다는 내적인 통제감이 높을수록 정서적인 적응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지적인 가정과 학교 환경이 비행과 같은 행동적인 적응영역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고위험 빈곤청소년이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협을 보다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수준의 생존상태에서 살아가는 극빈 가구들인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을 고위험 빈곤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위협의 내용과 주관적 피로움 정도를 고찰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들은 생활고 뿐 아니라 부부불화나 편부모가정이라는 편견 등 만성적인 생활조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크게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낙인이나 편견에 의한 스트레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는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되는 문제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가정환경과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뒷받침되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일 뿐 아니라 비행과 같이 행동화되는 문제성향도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빈곤을 청소년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때 단순히 생계의 어려움이나 소득의 부족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극도의 빈곤환경은 심리사회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와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러한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대부분 빈곤관련 기존 연구들은 빈곤의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빈곤이라는 문제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에 심리사회적 접근 자체가 구조적 문제의 개인화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을 통해서 개별적인 문제로 구체화되기 마련이고,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빈곤을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할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고위험 빈곤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문제를 발견하는 본 연구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임상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고위험 빈곤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정도를 밝힘으로서 빈곤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

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만성적인 생활조건과 그로 인한 주관적 괴로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그밖에도 편부모 가정이라는 주위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부모님의 불화 등도 높은 순위로 나타남으로써 빈곤 가정 청소년 가족을 위한 임상적 개입이나, 옹호 및 대변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개입의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자존감 증진이나 미래에 대한 조망능력, 생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등의 활용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지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체계나 학교 체계에 개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학습 증진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는 건강한 지지와 성인 역할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중요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개입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나아가 빈곤청소년 대상 사회사업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기존에 후원금 전달이나 경제적 원조와 같은 단순한 물질적 서비스에 그쳐있던 빈곤청소년 대상서비스를 정서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개입으로 다원화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대량 실직 등으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전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시말하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빈곤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사회가 대빈곤전쟁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했던 영역이 빈곤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 영역이었다. 이는 빈곤을 한 개인의 소득보장이라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위기로 조망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입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현 IMF 경제위기를 비단 경제위기 뿐 아니라 개별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로 인식하여 고위험에 처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전문가들의 관심과 다각적인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자, 변화순, 윤영숙. 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준호, 이성식. 1996. 계층에 따른 학업성적과 비행간의 관계-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박사학위 논문.
- 백정재. 1996. "빈곤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 석사논문.
-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pp.114-127.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 1996.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은주. 1996.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석사논문.
-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하은혜. 1998.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중앙적성출판사.
- 전재일, 조운희. 1990. "집단경험이 빈곤, 결손가정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 18. pp. 3-24.
- 정일훈. 1981. "청소년 가출, 어디에서 오나, 가정환경과 빈곤의 탈-현대사회에서 보는 청소년의 문제점". 충청문예.
- 최은영. 1995.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Brooks-Gunn, J., P. Kleanov, F. Liaw and G. Duncan. 1995.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Poverty upon Children." In Fitzgerald H. E., Lester, B. M. & Zuckerman B.(Eds.), *Children of Poverty- Research, Health, and Policy Issue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Conger, R. D., K. J. Conger, G. H. Jr. Elder, F. O. Lorenz, R. L. Simons, and L. B. Whitbeck.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pp. 526-541.
- Conger, R. D., X. Ge, G. H. Elder, F. O. Lorenz and R. L. Simons.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pp.541-561.
- Connell, J. P., M. B. Spencer and J. L. Aber. 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 Development*. 65. pp. 493-506.
- DuBois, D. D., R. D. Felner, H. Meares and M. Krier.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pp. 511-522.
- Fischer, J., and K. Corcoran. 1994. *Measure for Clinical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 Hashima P. Y. and P. R. Amato. 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pp. 394-403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uston, A. ed. 1991.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r, C. A. 1995. *Life Adjustment of an At-Risk Population: A Ten-Year Follow-Up of Urban African-American Tee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Kub, J. E. 1992. *Psychological Distress in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of Chronic and Interpersonal Stressors,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pp. 600-612.
- McCormick, M. C., and J. Brooks-Gunn. 1989.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 Freeman & S. Levine (Ed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NORC.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 of Chicago 1988. Eight Grade Questionnaire NELS: 88.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88*. U.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Sampson, R. J. and J. H. Laub. 1996.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pp. 523-540.
- Taylor, R. D., and D. Robert. 1995. "Kinship Support and Maternal and Adolescent Well-Being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6. pp.1585-2597

Abstract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High-Risk Adolescents in Poverty

Park, Hyun Sun

Adolescents whose families receive public assistance are primary interest in the article because they experience disproportionate shares of the burden of poverty and psychosocial stress and are at substantially high risk.

To explain the psychosocial stresses of high-risk adolescents in poverty,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relations and interactions of major variables: 1) stress related life condition, 2) individual & environmental resources, 3) emotional,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Data came from the survey of 351 students living in the families receiving public assistanc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High-risk adolescents in poverty suffered from chronic stresses related life conditions, including family environmental stress, financial & medical stress and stigmatic stress. As the effects of stress increased, depression/anxiety and delinquency of poor youth increase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poor youth at risk was most effected by the stress resulted from family environment. Though they were suffered from stresses related poor environment, adolescents in poverty adjusted well, if they had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cluding self-esteem, democratic parenting and supportive school climate.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emotional,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poverty was affected by various stresses from life conditions and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adjustment of poor youth at risk, life conditions have to be improved and psychosocial resources to be increased. These findings have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ers helping high-risk adolescents in poverty.

연락처: Tel: 0652-270-2799/0652-270-2962 FAX: 0652-270-2968
E-mail : sunny@moak.chonbuk.ac.kr